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2023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2023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현 정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질병·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른바 '공중화장실 3남매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2012년 전국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좋은이웃들 사업이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전국 140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활동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분들의 노력과 관심의 결과입니다.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은 소외된 우리이웃에게 건넨 희망의 메시지를 엮은 책입니다. 누구나 좋은이웃들 봉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봉사자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좋은이웃들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현장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2023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에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사업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민간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 성 이**

2023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

CONTENTS

04 발간사
08 좋은이웃들 활동사진
10 수행기관 주소록

CHAPTER 1
좋은이웃들

18 좋은이웃들 사업 소개

22 지역별 발굴·지원 우수사례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립과 단절로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 좋은이웃들의 관심
24 부산광역시 남구 불안에 떨던 어제를 안전한 오늘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배고픔보다 간절했던 자녀의 미래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목한 가정에 전한 작은 선물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무기력감 해소 지원
28 광주광역시 서구 사람으로 다친 마음을 보듬어준 좋은 사람들
29 대전광역시 중구 집안에서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었던 어르신
30 울산광역시 중구 치료비로 무너져가던 가족지지체계를 다시 이은 손길
31 세종특별자치시 새 책가방 지원으로 학업을 응원하다
32 경기도 용인시 사업 실패가 불러온 거주지 퇴거 위기
3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노부부에게 선물한 안전한 거주 환경
34 충청북도 괴산군 사춘기 아동의 마음을 보듬어준 좋은이웃들
35 충청북도 청주시 연로한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36 충청남도 서산시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쓸 수 없던 나를 도운 이웃의 손길
3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꽃 틔운 우수한 학업성취
3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화재가 앗아간 네 가족의 보금자리
39 전라남도 무안군 계단이 많아 이동에 제약이 컸던 어르신
40 전라남도 보성군 다각적인 네트워크 연계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살피다
41 경상북도 상주시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천장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어르신
42 경상남도 거제시 다각적인 네트워크 연계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살피다
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난에서 비롯된 화목한 가정의 위기

CHAPTER 2
AT좋은이웃들 발굴·지원 사례

46 전라남도 고흥군 아이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하다
48 전라남도 진도군 장애도 꺾을 수 없었던 긍정의 힘
50 전라남도 나주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득한 손녀에 대한 애정
52 전라남도 함평군 외로움에 고립되어 있던 어르신을 응원하다
54 전라남도 여수시 복지 사각지대 속,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에게 전한 이웃의 따뜻함
56 전라남도 영광군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지역사회의 연계

CHAPTER 3
특별부록

60 좋은이웃들 관계자 특별 기고
66 가구 유형별 위기발생 징후
67 위기가구 공통 징후 사례
68 아동 위기 징후 사례
69 청소년 위기 징후 사례
70 청년·중장년 위기 징후 사례
71 노인 위기 징후 사례
72 위기가구 발굴 관련 행동요령
76 위기가구 지원·제도 정보

소외된 우리이웃 지킴이

좋은이웃들 활동사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이웃들의 이야기

온기를 나누는

따스한 시선으로

2024년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연락처 및 기관정보

서울특별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구로구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기관] 02-869-9555 [직통] 070-4350-7043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7층	ssnguroin@naver.com gt1201@naver.com
금천구	금천구사회복지협의회	02-868-6856	085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 3층	gcnuri@gcnuri.or.kr
도봉구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02-956-8773	0133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2층	dobong0710@naver.com
서대문구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02-304-1376	03715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 4층	sdmssn@daum.net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기관] 02-2670-4196 [직통] 02-2671-9404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sycsw@hanmail.net
강동구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	02-489-0697	05340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1073 6층	gssn21@naver.com
서초구	서초구사회복지협의회	02-581-7992	06677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48	scssn@daum.net
은평구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02-356-5594	0345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1길 22 2층	epcswup@naver.com
종로구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02-734-0661	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9	lovejcsw@hanmail.net

부산광역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051-647-3655	48468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8	namguswc@hanmail.net namgu3655@naver.com
북구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로뎀복지재단)	051-332-8004	46616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02	07mandeok@hanmail.net
연제구	연제구사회복지협의회	051-715-4303	476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로17 4층	yj-csw@naver.com

대구광역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남구	대구남구사회복지협의회	053-474-8880	4243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0길 69	dgncsw@daum.net
달서구	대구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	053-721-7253	427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2층	dsswc2016@naver.com
달성군	대구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053-615-9191	4298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dssw616@naver.com
동구	대구동구사회복지협의회	053-983-9100 (070-4353-2908)	41039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31길 9-6	donggussn@daum.net
북구	대구북구사회복지협의회	053-323-2297	41473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 9길 10-25	bukgu7777@naver.com
서구	대구서구사회복지협의회	053-353-8310	41727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 6길 9	dgsuguswc2020@naver.com
수성구	대구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053-781-5156	42192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suseongcsw@naver.com
중구	대구중구사회복지협의회	053-254-6367	41946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32 4층	jgcsw@hanmail.net

인천광역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연수구	세화종합사회복지관	032-813-2790~4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sehwawelfare@hanmail.net
계양구	인천계양구사회복지협의회	032-545-7179	210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74-33	icgysw@hanmail.net icgy0357@hanmail.net
서구	인천서구사회복지협의회	032-565-3129	22640	인천광역시 완정로64번길 12 2층	akma1015@naver.com

광주광역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광산구	광주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062-951-6647	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5-9 2층	gscsw1004@hanmail.net
북구	광주북구사회복지협의회	070-4113-8127	61197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23 1층	bukgu2019@hanmail.net
남구/서구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062-464-5802	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ssn@gjcsw.kr

대전광역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서구	대전서구사회복지협의회	042-523-9182	3532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13번길 25	ssn067ssn@hanmail.net
중구	대전중구사회복지협의회	042-221-2579	34802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695	jcwsk2002@hanmail.net

울산광역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울산 전역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052-945-3008	4468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93 4층	wel4u@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044-862-0404	3002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6층	sj-csw@naver.com sgchrh@naver.com

경기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수원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031-253-2310	16668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로 194번길 19 4층	suwoncsw@hanmail.net
고양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031-922-5784	103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53-24	gycsw1005@hanmail.net
광주시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1-798-8808	12755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53 2층	gjcsw8808@naver.com
김포시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031-996-0094	1011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0	gpcsw@hanmail.net
동두천시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1-864-4769	11330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49 2층	ddccsw@hanmail.net
시흥시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031-404-4347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5 2층	shcsw@naver.com
안산시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031-401-6472	1539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260 1층	ansanssn2005@daum.net
안성시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031-675-7676	17590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51번길 11 2층	sw6757676@naver.com
안양시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031-446-4065	140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23번길 5 6층	aycsw@hanmail.net

경기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양주시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1-857-7972~3	11486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8번길 108-47 4층	yjcsw@naver.com
여주시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1-883-3304	12626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35-16 2층	ssiy0425@naver.com
오산시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031-374-4569	18139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7 4층	oscsw2013@daum.net
용인시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031-286-7918	1699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B2층	yicsw@hanmail.net
이천시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1-638-4427	17389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31-30 3층	iccsw2000@daum.net
평택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031-653-5040	17902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0번길 35 6층	ptcsw5021@hanmail.net
포천시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1-531-0268	11147	경기도 포천시 신읍길 26-12 2층	pcsw@hanmail.net
하남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031-795-4668	12932	경기도 하남시 덕풍로81번길 18 2층	hncsw4686@daum.net
화성시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031-366-4023	1859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 2층	hscsw4023@naver.com
광명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02-2687-1091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gmcsw@hanmail.net
성남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031-756-3579	133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2층	scsw2005@hanmail.net
의왕시	의왕시사회복지협의회	070-8915-5982	16027	경기도 의왕시 복지로 109 2층	ucsw2015@naver.com
부천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2-662-7713	14548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4층	bccsw@naver.com
의정부시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031-852-4540	1165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 14	ssnucsw@naver.com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강릉시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	033-644-2744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 B1층	gncsw2744@naver.com
고성군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033-682-7602	2473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쇠롱골길 17 2층	gscsw7602@hanmail.net
동해시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	033-533-4451	25775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2	ehdtkguq07@daum.net
삼척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33-574-7952	2593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74 2층	sccsw@hanmail.net
속초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070-4423-6729 033-633-1363	24838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3층	sccsw1363@daum.net
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	033-481-5161	2453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65-44	gil6048@naver.com ljy6793@hanmail.net
양양군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033-672-8529	2503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yycsw@naver.com
영월군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033-373-0199	2622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89	ywsh0620@naver.com
원주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3-742-1104	26417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1층	wjcwc@hanmail.net
인제군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	033-461-1134	2363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8	ijcsw@naver.com
정선군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033-562-2446	2612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4길 71 2층	jscsw@naver.com
철원군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033-452-4567	2404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54 2층	cwcsw@hanmail.net
춘천시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3-262-5994	2427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04-1 3층	csw5994@hanmail.net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태백시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033-553-3665	26044	강원도 태백시 화장목이길 19-12	tbcsw3665@daum.net
평창군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033-333-0117	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2층	pccsw2002@hanmail.net
홍천군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033-433-8587	2513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1	hcssn@hanmail.net
화천군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033-442-1992	24140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3341	hccsw1992@naver.com
횡성군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033-342-1104	25219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hscsw1104@daum.net

충청북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괴산군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043-834-1377	28031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04 1층	kscsw1377@hanmail.net
음성군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043-873-2882	2770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40번길 9-1 2층	uscsw@hanmail.net
제천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043-645-5004	27194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390	jccsw5004@naver.com
진천군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043-537-5004	2783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2층	jinhcun5004@hanmail.net les4608@hanmail.net
영동군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043-744-6140	2913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1로 71 1층	rev4988@hanmail.net
단양군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043-422-1299	2701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3층	dycsw2019@hanmail.net
옥천군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043-731-0406	2903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길 6 4층	okcsw03855@hanmail.net
청주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043-267-0866	284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665	cjsw2007@hanmail.net

충청남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계룡시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042-551-9191	32832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302 4층	ssngr9191@naver.com
공주시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041-858-9927	32587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69-11	ssn9927@naver.com
논산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041-733-2001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5층	ran4009@naver.com
당진시	당진시사회복지협의회	041-357-3000	31774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1길 11 2층	vision4230@hanmail.net
보령시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041-935-8502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1길 95 2층	qhfud8502@hanmail.net vonagi@naver.com
서산시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041-667-4801	31992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3로 36	lgs5509@hanmail.net
서천군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041-952-1414	33645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0	qhrwl1414@hanmail.net
예산군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041-335-4288	3243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93 2층	ascswys@hanmail.net songwoll77@naver.com
천안시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041-554-0223	3115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1층	5540223@naver.com
청양군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041-943-6075	33302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32 3층	cy9436075@naver.com
태안군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	041-675-1901	32143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6길3 2층	yunhmo@hanmail.net
홍성군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	041-631-9393	3224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내포로 239번길 2층	good-hssn2014@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고창군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	070-4350-2260	56442	전북 고창군 전봉준로 201-1	gc2023@naver.com
군산시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063-442-6663	54123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64	gscsw9@hanmail.net
김제시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063-546-1072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 2층	gjcsw-1072@hanmail.net
남원시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063-631-0133	55772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1531 1층	jisvol@hanmail.net
무주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063-324-1072	55521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122	mjcsw21@hanmail.net
부안군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3-776-7761	5830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송산길 39	buancsw@naver.com
순창군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063-653-9120	56033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30	6501818@hanmail.net
완주군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063-247-7532	55334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wanjussn2151@naver.com
익산시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063-855-2243	54638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9길 38	iccsw05@hanmail.net
임실군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063-644-8255	55926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2	imsil@hanmail.net
장수군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063-351-7072	5563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27-9 1층	jscsw@hanmail.net
전주시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063-905-8931 063-241-8931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12-8	jcsw21@naver.com
정읍시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063-533-4119 063-538-1966	561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대석1길 13-16	jesw2006@hanmail.net
진안군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3-432-1966	55433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관산2길 10 2층	jinanssn@daum.net

전라남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고흥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061-832-2500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1층	gccsw2003@naver.com
광양시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061-793-0059	5774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1-1 3층	ssn0617930059@daum.net
나주시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061-333-8946	58267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182-7 1층	najucsw22@naver.com
무안군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061-453-9996	5852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동문안길 56-1 2층	massn2020@naver.com
보성군	보성군사회복지협의회	070-4350-6387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인길 18-6	kkim3661@nate.com
순천시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	061-752-8206	57959	전라남도 순천시 우석로 130 1층	ssnscsw@daum.net
신안군	신안군사회복지협의회	1688-7934	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49	ghkd2854@korea.kr
여수시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061-686-7702	59640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41-1 2층	yeosussn@daum.net
목포시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061-984-8947	58695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68번길 14 2층	dnjswlgus1@naver.com
영광군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061-351-2240	5703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71-20	yshssn2240@daum.net
장성군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061-393-5009	5722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35 3층	ssncs@naver.com
진도군	진도군사회복지협의회	061-544-3888	58919	전라남도 진도군 동외3길 35	handosa35@hanmail.net
함평군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061-322-0088	57143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71 2층	hpcsw111@hanmail.net
화순군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061-373-6800	58149	전라남도 화순군 정곡로 115	hcsw1@naver.com

경상북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경주시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054-742-9046	38103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51번길 19 3층	ssn9048@hanmail.net
상주시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	054-534-7896	37232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1길 99	sangjussn@naver.com
안동시	안동시사회복지협의회	054-859-7387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옥명2길 27	adcsw2008@hanmail.net
의성군	의성군사회복지협의회	054-834-8341	37363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봉기길 54-9	xianghe@naver.com
포항시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	054-241-5888 [직통] 070-7163-8211	377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미길31	phcsw119@hanmail.net
구미시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054-453-8550	39278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211 2층	gcsw8550@hanmail.net

경상남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거제시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055-634-2991	53256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3층	gcosw@hanmail.net
거창군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055-942-7934	50110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1029	ljsin1020@gcssn.or.kr
김해시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055-904-4004	50958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7 2층	ghwelfare@hanmail.net
사천시	사천시사회복지협의회	055-831-5790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5길 15	scssn2020@naver.com
의령군	의령군사회복지협의회	055-574-8660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44 3층	ssn8666@daum.net
진주시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055-756-1004	52751	경상남도 진주시 의곡길 30번길 4	jcosw5465@hanmail.net
창원시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055-245-2080	511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1층	cwcsw2080@hanmail.net
함양군	함양군사회복지협의회	055-963-4475	500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3층	hpcsw@naver.com
산청군	산청군사회복지협의회	055-973-9117	52222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91번길 19 1층	scsw00291@naver.com
고성군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055-674-2220	5293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2층	gsssn@naver.com
하동군	하동군사회복지협의회	055-883-9464	5231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2층	hdcsw24@naver.com
창녕군	창녕군사회복지협의회	055-536-1231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갈전1길 24-5	ccsw1231@naver.com
합천군	합천군사회복지협의회	055-934-1199	50232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69 2층	hcssn22@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수행기관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기관메일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064-702-4605 [직통] 070-4922-1918	632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arawell4605@naver.com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예담)	064-762-0211	635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512번길 9 2층	oksogwipo1@daum.net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전해주는
좋은이웃들의 이야기”

CHAPTER

01

좋은이웃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도움을 전하기 위해
민·관, 민·민 네트워크를 협력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 지킴이

좋은이웃들

좋은이웃들 사업 소개

사업개요

좋은이웃들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주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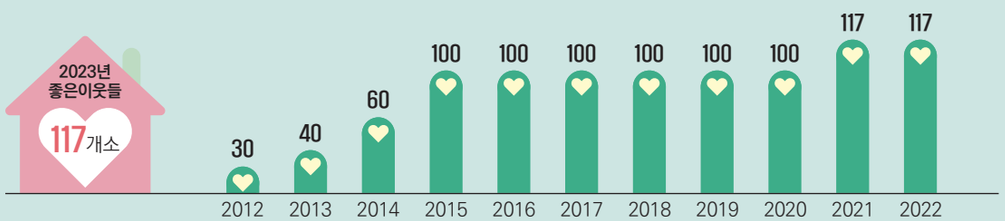
사업목적 민·관, 민·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연계 지원 체계 구축 마련 및 현행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효과성 극대화
– 지역 자원 및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소외된 이웃을 발굴·지원

지원대상 시·군·구 지역 사회복지 소외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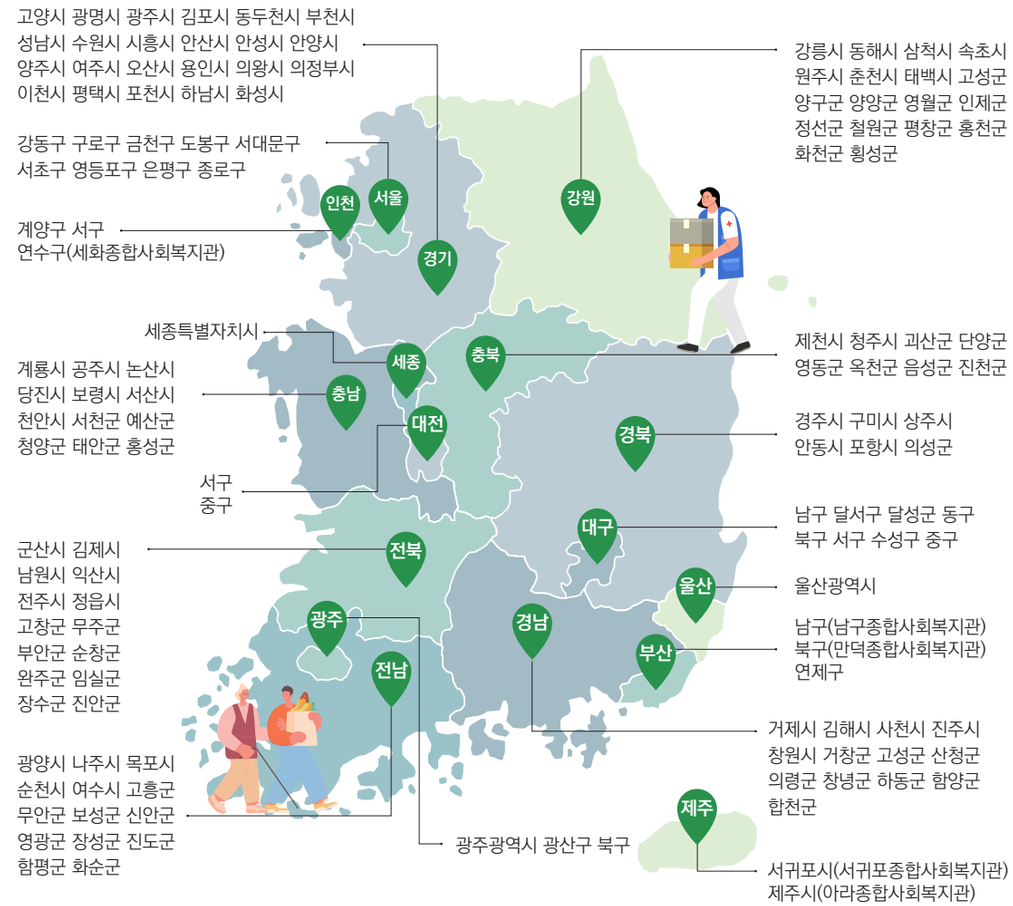
지원내용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공공복지제도(급여, 서비스 등) 신청·연계 및 기부식품·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추진 배경 및 경과

- 공중화장실 사는 3남매 사건('11.4), 송파 세모녀 사건('14.2), 방배동 모자사건('20.12), 수원 세모녀 사건('22.8), 전주 모자 사건('23.9) 생활고·질병·고독·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동반 자살사건 잇따라 발생
- 공공영역이 직접 발굴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을 위해 민간주도의 "좋은이웃들" 시범사업 추진(2012년 보건복지부)
-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고를 위해 시군구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이웃들" 사업 시작(201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수행지역



수행지역 현황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09	03	08	03	03	02	01	01	23
14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08	12	14	14	06	13	02	

사업내용

봉사단 위촉

지역사회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좋은이웃들 봉사단'으로 위촉 및 조직화

- **지역주민** : 자원봉사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 복지 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원, 농민 회원, 로타리클럽회원 등
- **저소득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 PC방, 만화방, 지하철 및 기차역, 버스터미널, 상가, 슈퍼, 고시원, 찜질방, 쪽방, 여관, 여인숙 등
- **그 밖에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경찰관, 소방대원, 택배배달원, 우편집배원, 요구르트판매원, 해병대 전우회, 신문배달원,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청소용역, 초중고 교사 등

소외계층 발굴·신고

위촉된 좋은이웃들이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해당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 상시 파악, 발굴·신고

- 공용 화장실·역이나 터미널 주변·공원·교각 아래·창고·폐가·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자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자
- 추가 발굴대상자 범위
  - 빈곤·학대·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과 청소년
  -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은 대상자 상담 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복지급여 수급가능 여부 파악

-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부식품·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인적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운영 프로세스

주요실적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좋은이웃들 봉사자 약 6만 8,000여 명 참여, 복지 소외계층 31만 3,000여 명 발굴, 민간·공공자원 112만여 건 연계·지원

(단위 : 명,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봉사자 운영	5,209	10,922	15,075	23,188	30,027	35,537
소외계층 발굴	6,137	12,526	12,742	19,230	25,187	28,419
자원 연계·지원	12,057	36,817	44,129	59,867	69,715	78,39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봉사자 운영	42,439	46,495	50,831	59,241	63,790	68,318
소외계층 발굴	29,015	31,130	34,914	37,852	39,664	36,979
자원 연계·지원	91,270	110,940	128,650	154,297	173,218	167,036

소외된 우리이웃 지킴이

좋은이웃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립과 단절로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 좋은이웃들의 관심
[부산광역시 남구] 불안에 떨던 어제를 안전한 오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배고픔 보다 간절했던 자녀의 미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목한 가정에 전한 작은 선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무기력감 해소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사람으로 다친 마음을 보듬어준 좋은 사람들
[대전광역시 중구] 집안에서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었던 어르신
[울산광역시 중구] 치료비로 무너져 가던 가족지지체계를 다시 이은 손길
[세종특별자치시] 새 책가방 지원으로 학업을 응원하다
[경기도 용인시] 사업 실패가 불러온 거주지 퇴거 위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노부부에게 선물한 안전한 거주 환경
[충청북도 괴산군] 사춘기 아동의 마음을 보듬어준 좋은이웃들
[충청북도 청주시] 연로한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 서산시]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쓸 수 없던 나를 도운 이웃의 손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꽃 틔운 우수한 학업성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화재가 앗아간 네 가족의 보금자리
[전라남도 무안군] 계단이 많아 이동에 제약이 컸던 어르신
[전라남도 보성군] 다각적인 네트워크 연계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살피다
[경상북도 상주시]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천장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어르신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을 수 없던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난에서 비롯된 화목한 가정의 위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 이○엽

고립과 단절로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 좋은이웃들의 관심

新취약계층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이어가며
생계와 주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4세인 이○엽 님은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소극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취업하여 얼마간의 근로활동을 시작했지만, 대인관계·직장생활 부적응으로 은둔생활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절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가족 친척과의 왕래도 거의 없어 살아가기 막막한 상황 다행히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 보니 오랜 시간 월세가 체납되어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이 갈 곳 없는 이○엽 님의 처지를 고려해 지금까지 강제퇴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월세가 오랜 기간 체납된 점에 대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지원할 방법을 물색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이○엽 님의 주변 이웃과 지역 주민센터의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달 치라도 월세를 낸다면 강제퇴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약속에 따라 연체된 월세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과 취업의 필요성을 느낀 이○엽 님이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응원 좋은이웃들 사업의 지원으로 다시 집 밖으로 발을 내딛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 이○귀

불안에 떨던 어제를 안전한 오늘로

"싱크대가 내려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

이○귀 님은 현 거주지에서 58년째 거주 중입니다. 반평생을 함께 해온 정든 집이긴 하지만 점차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싱크대 상부장이 내려앉는 바람에 벽돌 하나로 겨우 지탱하고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거주지에 있는 작은방을 임대해 월세 13만 원과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으로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을 모두 챙기기에도 벅차 무너진 싱크대를 수리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끼니 역시 주변 이웃과 지역 종교단체에서 밑반찬을 종종 지원받아 해결하고 있긴 하나 다리 수술과 척추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생활 유지가 어려웠던 이○귀 님은 직접 지역복지센터에 방문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 중인 노후된 주택이 자가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좋은이웃들은 맞춤형 지원사업과 위기구호비 지원을 통해 싱크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역 이웃 역시 이○귀 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의 경로식당에서는 이용자로 선정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결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이○경

배고픔보다 간절했던 자녀의 미래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쪼개
자녀의 공부를 지원할 정도로 자녀의 미래에 각별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생활비가 부족해 식료품을 줄이며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경 님은 2015년 희귀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은 뒤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뇌염과 척추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019년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허리 수술 4회 유방암 수술 2회 등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데다 유방암의 경우 절개했던 자리에 재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했지만 통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우자 역시 이○경 님의 간병으로 정기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수급비로만 생활하다 보니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2023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장학제도 등을 활용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 님은 3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생활에도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자녀 생활비를 보내주고 남은 돈으로 비급여 의료비, 교통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다 보니 식·생활비가 부족해 먹는 것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식료품·생필품을 지원해 부부의 균형 잡힌 식사 해결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센터와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병원 진료 시 동행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았고 배우자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이○미

화목한 가정에 전한 작은 선물

해당 가구는 배우자, 6명의 자녀로 구성된 8인 가구입니다.
사춘기의 청소년 자녀가 있음에도 가족들간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자녀들 모두 돈독한 우애를 자랑합니다.
생활비가 적어 아이들을 잘 먹이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이○미 님은 6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8인 가구 구성원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이려 노력하는 등 가정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을 보내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별도의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동안 마트 등 거래처에 세제를 납품해 마련한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다수의 거래처가 폐업하며 소득이 많이 줄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가족들은 끈끈한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들 역시 또래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님은 적은 소득만으로는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8인 가구의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이 있어 결국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좋은이웃들은 생필품 지원을 통해 식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고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학습 멘토링을 연계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진○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무기력감 해소 지원

자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해충이 들끓는 집안에서 자녀는 항상 불안해 하며
엄마와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생활력이 강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근로의지를 상실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미 님은 2023년 초 거주하던 집의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여유가 없었던 터라 이주한 집은 계단 난간과 천장이 부서지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집안에서도 곰팡이가 자주 피고, 바퀴벌레가 자주 돌아다녀 위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거주지 환경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LH, 지역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기에도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아 지역보건소를 통한 소독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혼자 생활했으며 이후 근로활동을 하며 성공적으로 자립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위생환경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하며 근로 의지를 잃어가는 등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할 때 이미 공적 지원을 받은 터라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진○미 님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너무 의존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이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이사비용 일부와 후원품을 함께 전달해 여러번의 이사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 소○수

사람으로 다친 마음을 보듬어준 좋은 사람들

바닥공사를 하는 동안 갈 곳 없던 가족들은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주를 지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웃음꽃이 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수 님은 자녀 둘과 함께 어머니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항상 어두컴컴했고 장판이 까맣게 변색되고 벽지엔 곰팡이가 피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해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의 호흡기질환이 우려되는 데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아빠가 방을 함께 쓰고 있어 청소년기의 예민한 자녀에게 방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소○수 님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보니 늦은 밤이나 새벽 퇴근이 잦아 가정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어 마음의 상처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한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을 수리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자녀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등 양육 의지가 강해 가정 상황이 안정된다면 자녀들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낡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는 수리가 불가능해 교체가 시급했고,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장판과 벽지도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 맞춤 돌봄 에너지 효율사업에 보일러 교체를 신청해 소○수 님의 가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판 교체 역시 민간자원을 연계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위해 방을 분리하는 공사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좋은이웃들의 도움으로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 이○순

집안에서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었던 어르신

뺑소니사고로 수술까지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안전바의 부재로 집안에서도 낙상사고를 당해 얼굴을 크게 다친 적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조차 위험에 노출되어 마음을 졸이던 상황입니다.

이○순 님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 중인 노부부입니다. 집 밖을 나서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지만 거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증세도 나타나 간병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자녀가 둘 있지만 딸은 과거 보증을 잘못서 관계가 단절되었고, 아들 역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역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 등 거리가 있는 곳의 외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무릎이 좋지 않은 데다 허리디스크, 부상, 어지럼증 등으로 복도와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화장실에서 손잡이 대신 수건걸이를 잡고 일어나다 미끄러져 얼굴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손잡이를 설치했지만 위치가 높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부부는 자녀는 물론 주변에서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따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거동이 불편한 이○순 님과 배우자가 집안에서 낙상사고로 더 이상 크게 다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물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가장 큰 화장실에 기존 안전바를 철거하고 편히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수월하게 외부를 오갈 수 있도록 현관 부근에도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노부부는 자녀보다도 좋은이웃들이 가족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 석○길

치료비로 무너져가던 가족지지체계를 다시 이은 손길

미납된 치료비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의 지원을 통해 퇴원 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균열이 생기던 가족지지체계 역시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활력을 얻어가는 중입니다.

석○길 님은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입니다. 의료진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은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병원비 미납으로 퇴원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은 오래된 트럭 한 대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 곧 처분할 예정이지만 미납된 병원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석○길 님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미납된 병원비 완납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일부 금액만이라도 납부한다면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돕겠다 나섰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 있지만 이혼했고 자녀 역시 왕래가 없어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석○길 님은 일상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먼저 미납된 의료비를 일부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 네트워크를 연계 했습니다. 또한 퇴원 후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지원을 연계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겨 의료비를 지불한 점을 발견해 초과분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길 님은 환급된 보험료로 미납된 치료비 전액을 납입했습니다. 자녀와도 다시 연락하며 가족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등 생활에 활력을 얻는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 임○하

새 책가방 지원으로 학업을 응원하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리보조 업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두 자녀의 교육비를 보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하 님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입니다. 위로는 4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으며 어머니가 주방일을 보조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머니의 외벌이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두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개학이 다가오고 있지만 낡은 책가방과 학용품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원활한 교우관계와 학업에 흥미를 갖기 위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지역 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발굴된 사례입니다. 좋은이웃들은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해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자원 연계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새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홀로 감당이 어려웠던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좋은이웃들을 통해 지원받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임○하 님은 자녀들이 새 책가방을 받으며 보여준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며 엄마로서 더 열심히 살아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 김○용

사업 실패가 불러온 거주지 퇴거 위기

4인 가구의 가장입니다. 사업 실패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거주 중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심적 부담이 큽니다.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어린 자녀들의 기저귀, 위생용품 등을 사기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김○용 님은 코로나19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는 자신 있게 시도했던 의류사업이 부진해지며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살고 있던 주거지는 가압류된 상태이며 경매 절차가 시작돼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네 살 터울의 자녀 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비를 조금씩 보태왔지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입으로는 네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기저귀, 위생용품 등 생필품도 시급한 데다 관리비까지 장기 미납되어 단수 등 생활고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용 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거주지의 경매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장기 연체해 수도가 끊기자 해소하기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용 님을 통해 관리비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부족한 생필품은 우리함께행복나눔기금과 연계하여 지원했고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은 좋은이웃들 위기구호비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고용센터 취업 교육 및 연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장○종

노부부에게 선물한 안전한 거주 환경

화장실은 다른이가 봐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이 간 변기,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타일 등으로 노부부는 주거지에서 조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장○종 님은 지적장애를 가진 77세 어르신입니다.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 중이며 2023년 3월 뇌경색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스텐트 시술, 우측 대퇴동맥 복원술을 받는 등 큰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장○종 님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으며 이로 인해 공적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노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주지 환경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화장실 타일과 바닥, 시설이 노후되어 곳곳에 균열과 타일이 깨져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종 님은 최근 왼쪽 눈 시력이 많이 저하돼 안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후된 화장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협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고 긴급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좋은이웃들은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완공 이후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며 이제는 불안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공적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없었던 노부부에게 작은 도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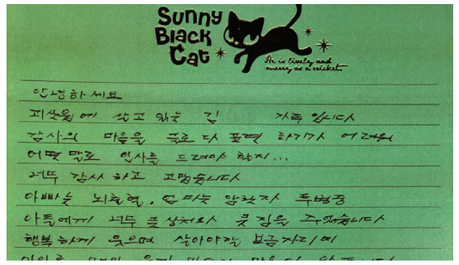
충청북도 괴산군 | 김○형

사춘기 아동의 마음을 보듬어준 좋은이웃들

결혼 전 위암이 재발한 어머니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아버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 닥친 가정의 비극은
사춘기를 앞둔 아이에게 큰 심적 부담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형 님의 부모님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근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매달 지출되는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가 심각하고 머리에 물이 차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머니 역시 두 번의 위암을 앓으며 위 전체를 절제했지만 대장에 암이 재발하며 또다시 수술 받아 현재는 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김○형 님은 어머니의 와병으로 아버지에게 많이 의지하는 등 부자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부모의 투병으로 인해 학업 의지를 잃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부모님 등 열악한 가정 상황 속에서도 의젓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에 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해 현재는 정서적으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의 하루 일과와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학업 지원을 위해 학원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부모님의 의료비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병원비 역시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 이○식

연로한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주고 있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을 돌봐줄 가족이 없어
근심과 걱정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식 님은 고령의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생활 중인 모자 장애인 가구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이○식 님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집은 노후되어 천장에 선 물이 새고, 벽지와 장판도 낡고 헤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에 걱정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식 님은 교통사고로 인한 저산소 뇌손상으로 장애를 겪고 있고 거동도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좋은이웃들은 어머니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식 님의 중증 장애와 연로하신 어머니는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집을 보수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누수가 심한 천장과 벽지, 장판을 교체해 드리고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진 집을 본 어머니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이○식 님과 어머니가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 김○애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쓸 수 없었던 나를 도운 이웃의 손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공과금 납부 통장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체납된 수도요금으로 물이 끊긴 상황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쓸 수 없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애 님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나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있지만 서로 왕래가 없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이 없어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공과금 이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도요금이 1년 넘게 연체되었습니다. 결국 수도가 끊겨 물을 쓸 수 없지만 장애를 겪고 있는 김○애 님은 혼자 해결하기엔 벅찬 실정입니다. 검침원 점검 결과 누수는 없어 체납된 수도요금만 해결한다면 다시 물을 쓸 수 있는 위생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김○애 님이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납된 수도요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김○애 님을 대신하여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 등 복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함께 진행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애 님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불편하게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애 님을 보살피던 요양보호사의 도움 덕분에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고, 1인 장애인 가구가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신○슬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꽃 틔운 우수한 학업성취

가정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중퇴한 고등학교,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학교에 학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의 열정이 사라질까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대학생인 신○슬 님은 학기 중 기숙사에서 거주하다 방학을 맞아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족의 생계와 공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태는 등 강한 생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거주 환경이 열악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신○슬 님은 모두 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국립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해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언제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친인척들 역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고민이 깊습니다.

신○슬 님은 부모의 장애와 가정 형편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없어 좋은이웃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도 학과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공부에 열심입니다. 가정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부모님에게만 공적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신○슬 님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공공기관에 결연후원자로 연계해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생활비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했습니다. 신○슬 님은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기뻐하고 감사해 했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박○숙

화재가 앗아간 네 가족의 보금자리

원인 모를 화재로 가족의 보금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당장 갈아입을 옷도, 밥을 지을 밥솥조차 남김없이 불에 타버린 데다
집에 있던 자녀는 2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숙 님이 살고 있는 집은 전소되었고 이후 화재의 원인 조사로 수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은 관내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용근로와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큰아들은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퇴원했지만 화재 당시 집에 있다 양쪽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딸 역시 지적장애가 있으며 현재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숙 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지만 이번 화재로 살 곳과 가재도구를 모두 잃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주거지원과 의류 등 생필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재로 생활 터전을 모두 잃은 가족들은 옷, 세탁기,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가전제품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생필품 등을 연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민간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임시 거주시설인 마을회관에 세탁기, 밥솥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가전제품을 전달했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모두 잃은 박○숙 님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며 화재의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안정 역시 지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가정을 챙겨야만 하던 박○숙 님은 좋은이웃들의 지원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 조○천

계단이 많아 이동에 제약이 컸던 어르신

노환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노후한 집에는 계단이 많아 외출마저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외부 출입을 위해선 경사로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목욕조차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조○천 님은 연로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후한 거주지는 계단이 많은 집 구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환으로 완전 와상상태가 되어 집안에서 조차 이동이 힘들어 목욕 한 번 하는 것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재가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욕구를 해소 하고는 있긴 하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쉽게 오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 일용직 등으로 근로 활동을 이어가며 생활비를 보태고는 있지만, 끈기 있게 근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조○천 님은 목욕 등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지 못해 상심이 커져갔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조○천 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원활하게 이동 목욕 서비스와 외출을 하실 수 있도록 현관과 집 앞에 경사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난간도 함께 설치해 눈이나 비가 와도 궂은 날씨에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 역시 신경을 썼습니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목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 조○천 님은 절실했던 목욕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 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 최○환

다각적인 네트워크 연계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살피다

학습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가정 환경, 불규칙한 근로 활동으로 농한기에는 소득이 없던 중 장모님의 병원비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부채는 농촌일손 등 근로 활동을 통해 거의 다 갚았지만 다가오는 농한기로 심적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환 님은 단독주택에 6명의 가족과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입니다.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농사를 시작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위해 인력사무소 등 농촌 일용직을 통해 부채는 거의 다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특성상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찾아오면 소득이 없어 부담이 매우 큽니다. 불균형한 근로 활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어 장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경, 장모님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최○환 님의 불규칙한 출퇴근, 장모님의 간병으로 학습을 도와 줄 어른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좋은이웃들은 최○환 님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낙서로 훼손된 벽지, 수세식 화장실 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해 도배, 장판 교체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책상, 의자 등 가구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고자 6개월간 긴급 생계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모님의 치료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때면 홀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지역 자율방범연합회 등 이웃 주민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최○환 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에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 서○분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천장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어르신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어르신은 슬하에 다섯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도 경제적 부담이 큰 자녀들은 어르신을 챙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집은 천장이 무너졌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서○분 님은 젊었을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5남매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폐 질환으로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생계가 어려워 서○분 님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큰아들이 매주 내려와 안부를 살피고 농사일을 돕는 등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낡고 오래돼 천장이 내려앉아 안전이 우려됩니다. 수리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벅차 집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천장은 점점 더 내려앉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례 상담 결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농사지은 작물을 팔아 버는 돈으로는 천장을 수리하기엔 부담이 커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이웃들은 주거환경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천장 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공공기관의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안전하게 주거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말끔하게 수리된 집을 본 서○분 님은 더 이상 천장이 무너질 걱정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원○균

다각적인 네트워크 연계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살피다

비수급, 장애인, 다문화로 구성된 가족들은 낡고 오래된 집에서 생활합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가득했던 집안은 어린 세 자녀의 건강은 물론 우울함을 호소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원○균 님은 일용직 근로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집이며 비나 눈이 오면 결로로 인해 장판,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슬하에는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발달장애로 일반학교를 다니지 못해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서비스와 치료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굴된 원○균 님의 가족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돌보다 지친 배우자 역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보이는 등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역 주민센터 확인 결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공적 자원 연계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원○균 님을 위해 좋은이웃들은 민간자원 연계를 시도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후원과 도움으로 곰팡이가 가득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광등, 방충망 등도 함께 교체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역시 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은 어렵지만 시청의 소규모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깨끗한 장판과 벽지를 보며 심적으로 지쳐있던 가족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점에 거듭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김○경

경제난에서 비롯된 화목한 가정의 위기

성실히 살아오던 부부는 큰 꿈을 안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빚과 부채는 화목했던 가정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연체로 말미암은 퇴거 요구, 단수로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던 가족에게 주거위기 해소가 절실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내려온 제주도에서의 삶은 김○경 님에게 고된 하루의 연속입니다. 대구에서 유아체육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어려워 빚만 남긴 채 제주로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곧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할 첫째와 심방중격 결손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살배기 둘째 자녀의 치료비 충당을 위해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이 아닌 일용직으로 본인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면서 수도와 가스가 끊긴 채로 캠핑장 수도를 찾아다니며 식수를 해결했고 거주지의 장기 체납으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어 주거 위기 해결이 시급합니다.

좋은이웃들은 김○경 님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주거 위기를 돕고자 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어린이재단과의 연계회의를 거쳐 위기 구호비를 지원하고 임대인 등과 협의하여 체납으로 빚어진 그간의 불화를 해소해 김○경 님의 심리적 위축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주거위기가 해소되자 조금의 여유를 되찾은 남편은 인테리어를 배우는 등 미래 계획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좋은이웃들을 통해 가정불화와 생활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업개요

- 목적 : '정부-공공기관-민간' 협업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 규모 : 2023년 7,000만 원(누적 8.1억 원)
- 내용 : 농어촌지역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해 공공복지제도 연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공헌활동 자원 연계·지원

추진경과

- 2017년 4월 27일 :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7년 : 18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시작
- 2018년 : 19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 2019년 : 12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 2020년 : 12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 2021년 : 11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 2022년 : 11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 2023년 : 11개 시·군·구에서 'aT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2023년 주요실적

- 사업지역 : 전남지역 11개 시·군·구* (*고흥군,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 봉사자 운영 : 2,874명
- 소외계층 발굴 : 624건
- 자원·연계 지원 : 15,941건 / 740,292,120원(기타 민간자원 연계 포함)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전해주는
좋은이웃들의 이야기"

CHAPTER

02

aT좋은이웃들 발굴·지원 사례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미소를 선물할 수 있는
aT좋은이웃들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 정○오

아이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하다

오랫동안 앓아오던 간질이 심해지며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곧 중·고등학교 재학과 진학을 앞둔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질을 앓고 정○오 님은 집주인의 배려로 시골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요청해오면서 주거위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어 근로가 어려운 정○오 님은 젊었을 때 대형 화물차 운전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지만 간질이 점점 심해지며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형이 가진 땅에 농사를 짓고 있지만 건강을 고려했을 때 농사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지역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지만 곧 중·고등학교 재학과 진학을 앞둔 세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입니다.

다행히 주거위기는 관내 복지제도에 선정돼 정○오 님의 형 명의로 된 땅에 작은 집을 지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탁, 수납장, 가전제품 등이 없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역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공부에 흥미를 잃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간질은 약을 복용하며 조금씩 증세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발작에 두려워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오 님은 지역 면사무소의 의뢰로 좋은이웃들 봉사자에게 발굴되었습니다. 최초 방문 상담 시에는 오래된 주택이어서 자녀들의 공부방 조성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좋은이웃들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질로 인한 심적 위축이 심했던 정○오 님과 어려운 가정환경에 조금씩 지쳐가던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민간·공공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다섯 식구가 살아갈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가구 등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에도 벅찬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어 민간자원을 연계해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지원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깨끗한 방에 책상, 의자, 책장이 들어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바닥에 책을 펴놓거나 밥상을 책상 삼아 공부했다던 아이들, 이제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 김○화

장애도 꺾을 수 없었던 긍정의 힘

오래된 집에는 곳곳에 높은 문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녀는
집안을 자유롭게 오가고
친구와 지인을 초대해 커피 한 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게 꿈입니다.

김○화 님은 하반신을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형제가 살긴 하지만 함께 생활하며 도울 수 있는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오래된 옛날 집으로 문턱이 많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기에 한 번 이동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집안에서 휠체어를 쓸 수 없다 보니 양손으로 몸을 지탱해 움직이지만 문턱이 높아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벽과 턱 등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커피 한 잔,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한 부엌, 방과 거실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다 보니 집 앞마당에는 손쓸 수 없는 폐기물들이 여러 군데 쌓여 있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눈비를 맞아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등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김○화 님은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대인관계가 좋아 이웃과의 왕래도 활발합니다. 근처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와 지인이 있어 이동이 필요하거나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작게나마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화 님은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해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며 교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이웃들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김○화 님이 집안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집수리와 생활지원품을 전달했습니다. 한없이 높은 벽과 같던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고 노후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필요한 집 곳곳을 정비했습니다. 지역 봉사단과 연계해 마당 한켠에 가득 쌓여 있던 폐기물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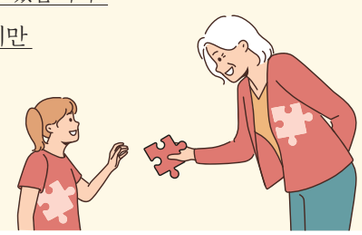
장애를 가졌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 꿈을 이루길 희망하는 김○화 님입니다. 그녀는 이동이 힘들었던 집이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으로 변한 환경을 보고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 복지센터 관계자 역시 김○화 님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으로 장애를 가졌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씨가 존경스러우며 면사무소에서도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 윤○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득한 손녀에 대한 애정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는 어르신의 긍정적인 모습은
무더운 날 속에서도
봉사자들의 웃음을 잃지 않은 원동력입니다.



윤○순 님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살고 있는 두 손녀에게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연금과 기초연금 등이 수입의 전부인 데다 주거환경을 돌보고 가꾸기엔 연로한 몸으로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변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집안 공기도 습기가 많아 벽지와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슬하엔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각자 생계를 잇기에도 벅차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치과 검진이 필요해 보였지만 윤○순 님은 정작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게 없다며 지금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실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살고 있는 손녀는 현재 미용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윤○순 님의 책임감 있는 보살핌 덕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심입니다. 손녀는 연로한 할머니께서 자신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안일과 식사준비를 하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쉽게 식사를 챙길 수 있게 전자레인지와 식료품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산속에 자리한 윤○순 님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집안에 모기 등 해충이 들어올 수 없게 방충망을 새로 설치하고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한 점을 살펴 화재경보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기도 선물했습니다.

손녀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각종 식료품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또한 오래되어 부실한 식기류 대신 깨끗한 새 식기류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오래되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등도 교체하고 배관이 막혀 사용이 어려웠던 수도관 등도 정비해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손보기도 했습니다.

좋은이웃들이 어르신을 도왔을 때는 여느 때보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봉사자들 모두가 그날따라 유독 심한 더위에 땀범벅이 됐지만 하나같이 웃는 모습으로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윤○순 님께 필요한 것이 더 없으시냐는 봉사자의 물음에 윤○순 님께서는 종종 들러서 자신이 처리하기 힘든 고지서나 우편물들을 한 번 봐주면 족하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 황○석

외로움에 고립되어 있던 어르신을 응원하다

자녀와의 관계 단절, 사업 실패 등으로
외로움에 지쳐있던 어르신
좋지 않은 치아, 외로움으로 끼니를 거르며
고립되었던 어르신은
좋은이웃들을 통해
다시 이웃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황○석 님은 혼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입니다. 집은 관리가 잘 되어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깔끔하고 정돈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지만 아들과는 불화로 인해 7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딸이 그나마 가까운 광주에 살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와 자녀와의 불화로 인해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아들과의 불화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황○석 님은 병원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바깥과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치아가 없어 식사가 불편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더 많고 끼니 대용으로 믹스커피를 자주 마셔 어떤 때는 하루에 20잔 넘게 마신 적도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된 황○석 님은 무척 외로워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봉사자와 주고받는 이야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끼니를 챙기고자 간편식 등을 지원했지만 이런 경제적 지원보다는 주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좋은이웃들은 끼니를 자주 거르고 외로움을 달랠 길 없는 황○석 님을 위해 정서적, 식사 및 생활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식료품을 지원하고 입맛이 없어 도무지 식사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주전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과일과 계란 등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봉사자의 정기적인 방문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식료품과 같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이웃과 소소한 일상 더불어 사는 이야기 나눔이 절실했던 황○석 님은 말동무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에 놀라며 '내가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하시는 말씀과 함께 연신 기뻐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 박○자

복지 사각지대 속,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에게 전한 이웃의 따뜻함

홀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어 지원되는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떨어져도 아끼고 아끼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다음 노령연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르신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박○자 님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입니다. 슬하의 자녀들은 독립해 생활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가끔씩 용돈을 보내오는 게 전부입니다. 고령의 나이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은 힘든 상황이며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형편을 알고 지역사회에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고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병원비 외에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어 다행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을 쪼개 쓰는 터라 생필품이 떨어질까봐 더더욱 아껴 쓰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이웃이 몇몇 없고 집 근처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자 님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들이 종종 도움을 주곤 합니다. 정작 자신이 받은 도움만큼 다른 어려운 이에게 베풀지 못한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좋은이웃들은 박○자 님의 생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필품, 지역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지역드림 가게의 위치와 해당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물품을 살 수 있는 착한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박○자 님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담당 봉사자가 드림 가게와 상품권 사용방법을 알려드린 이후 봉사자에게 직접 전화해 상품권 사용 후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침 쌀과 화장지가 떨어져 가게를 방문했고, 지원받은 상품권 덕에 그동안 금전적 부담이 커 구매하길 망설이던 질 좋은 야채와 생필품들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좋은이웃들은 생활고로 꼭 필요한 생필품조차 아껴야 했던 박○자 님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 서○수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지역사회의 연계

집안 곳곳은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은 고장 나
최소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었고
이혼 후 혼자 남겨져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살게 된 서○수 님은 1인 중장년가구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제때 끼니를 챙기지 않고, 주변을 돌보지 않으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근로활동에 대한 의지도 상실한 채 집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곤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수도와 난방도 고장 난 채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물이 끊기는 바람에 용변은 밖에서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가 커진 결과 알코올 중독과 저장강박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도 고장나 식료품이 모두 상해 섭취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체와 정신 건강이 우려되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와의 꾸준한 상담 결과,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다시 근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교류가 단절된 기간이 길어져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좋은이웃들은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수 님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보관하고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고장 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교체하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오래된 장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지역 면사무소에서도 서○수 님께서 최소한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참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함께 수행해 지역 봉사자들과 협의하여 집안 곳곳에 들어찬 잡동사니, 마당 등을 청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손을 보탰습니다.

이웃들의 힘으로 다시 깨끗해진 집을 둘러보며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원 연계 후 모니터링 결과, 깨끗해진 집안을 꾸준히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수 님은 근로 의지도 더욱 강해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집 밖을 자주 왕래하며 삶의 이유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스한 시선으로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CHAPTER

03

특별부록

소외된 이웃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따스함을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봄의 새싹처럼
이웃들에게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서구사회복지협의회 | 최은경 간사

이웃에게 나눠줄 사랑과 열정이 화수분처럼 끝없이 샘솟기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길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힘겨워 외롭게 흐느끼는 대상자들을 만나러 간다. 철퍼덕 주저앉아 우는 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일이 행복임을 알려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소원한다. 처음 사회복지의 시작은 보육원 방문 자원봉사였다. 그 모임의 이름이 '화수분'이었다. 화수분은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 두면 아무리 사용해도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화상의 단지를 이른다.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35년 사회복지사의 삶을 살면서 갖게 된 소망이 있다. 화수분처럼 나를 만나러 오는 분들의 꿀단지가 되어 가진 열정과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다. 끝으로 6년 동안 서구사회복지협의회의 일을 하며 만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대상자는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만난 ㈜에너넷 도시가스 검침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안전매니저의 의뢰로 만나게 된 84세 독거노인이다. 장남이 살던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장남은 코로나19로 사업이 부도 나는 바람에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차남은 빚을 갚지 못해 현재는 교도소에 있다고 한다. 추운 겨울임에도 얇은 잠바를 입고 끌려가는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가스 요금이 밀려서 방은 차디찼고, 허벅지 혈관도 막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썰렁한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만 계셨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노령연금으로 겨우겨우 살다 보니 병원은 엄두도 못 낸다며 서럽게 우셨다. 아들의 출소만 기다리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을 보며 함께 울었다. 좋은이웃들 사업비로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을 대신 내드렸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와 서구 통합사례관리자에게 연계하였다.

사례 2

대상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친부는 몽골인 여자와 결혼하였고 모는 대상자를 낳고 100일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대상자는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집에 살았고 조부모의 딸로 출생신고되어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주 수입은 할아버지가 폐지 주워 팔아 받은 6만 원과 노령연금 30만 원이고 62세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 그동안 하셨던 식당일도 하지 못하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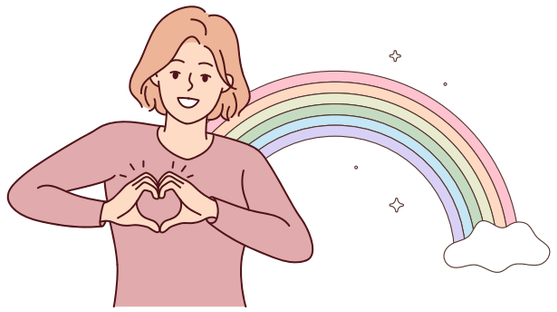
수도배관이 막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집에 설상가상으로 보일러까지 고장이 났음에도 수리도 못한 채 살고 있었다. 친부는 오랜 가출 후 집에 돌아왔으나 알코올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대상자는 연예인이 꿈이고 밝고 명랑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성적이 우수했다. 조부모는 여느 아이들처럼 용돈 달라는 말도 없이 어른처럼 잘하는 아이가 안쓰러우면서 고맙다고 했다. 대전서구사회복지협의회는 대상자 부(父)의 방을 복지소외계층 맞춤형 지원금 250만 원으로 수도배관, 화장실 변기 세면대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바꿔 주거환경부터 개선했다. 지역 내 단체인 '사랑의 사다리' 도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깨끗해진 집을 보니 내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것 같았다. 이런 도움에 감동을 받은 아이 아버지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중국집에 취직했다. 늦었지만 딸이 안정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협회에 대한 감사는 자기가 더 좋은 아빠가 됨으로써 갚겠다고 했다. 좋은이웃들 위기구호비 지원을 위해 대상자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조부모님이 좋아하는 된장, 고추장, 쌀만 사면 된다며 한사코 본인에게 필요한 옷이나 신발. 가방은 사지 않으려고 했다. 대상자의 그 고운 마음이 사춘기를 거쳐도 변하지 않고 돌봐주신 조부모님과 아버지 나아가 사회에 감사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했다.

끝으로 혼자라는 아픔을 안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이어가거나, 쓸쓸하게 삶을 뒤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한 이웃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사회를 우리 서구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일이 행복임을 알려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소원한다."

대전서구사회복지협의회
최은경 간사

꿈과 희망을 주는 일곱빛깔 무지개다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와 다문화가족상담, 한부모가족통합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무조건 열심히 잘하려는 마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몰랐을 때는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무료인데 참여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참여하기를 바랐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길 희망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먼저 방문하여 이런 부부들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오늘은 알았다고 하고 내일은 못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의 의욕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을 알게 되어 먼저 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점차 대상자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진행하여 그달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좋은이웃이라는 말처럼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대상자분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나 대상자들에게는 너무나 다양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김○○님은 자녀를 홀로 3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결혼 초기부터 가정폭력과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윤○○님은 동거남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바로 가출하여 우울한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황○○님은 자녀가 네 명이며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다가 도망치듯 집을 나와 경찰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1년 후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더욱 억울하다며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박○○님은 남편이 도박과 외도로 가정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려졌다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님은 자매가 모두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던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동생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되어 서로를 원망하며 우울한 마음으로 연로하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으며, 이○○님은 남편의 사업 빚으로 12년을 쫓기고 숨어 살며 지내다가 남편이 극적으로 합의이혼을 해주어 곰팡이가 잔뜩 있는 방에서도 도망 다니지 않고 숨지 않아 행복하다며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연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대부분 15세에서 20세가 넘는 경우가 많으며 아내에게 돈을 벌게 하고 본인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본인이 챙기기 위해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날마다 술을 먹으며 아내를 여러 가지 이유로 협박하며 괴롭히는 가정도 있으며, 한국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후 공장에서 만난 파키스탄의 자녀를 낳아 두 자녀를 홀로 키우지만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고 국적이 없어 아이가 세대주인 가정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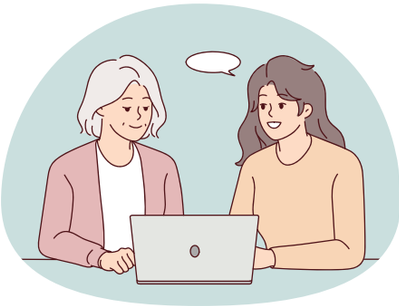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만나면서 사례관리사이자 상담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엄마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약한 가정에는 대부분 유아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약한 상태이기에 아이들이 함께 무기력해지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사업'을 대한민국에 알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무지개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이웃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무지개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이소자 봉사자

연수3동행정복지센터 | 윤미영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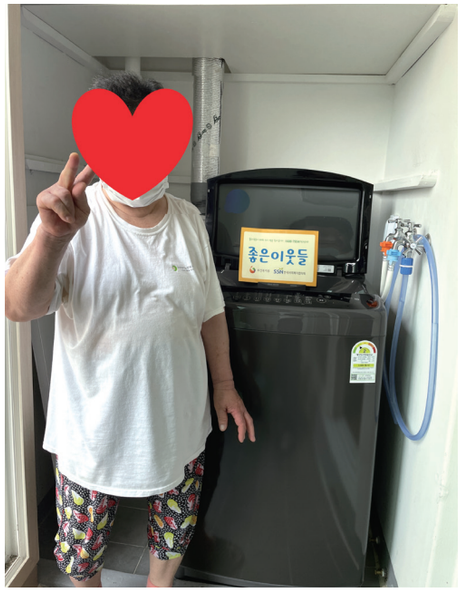
같이 더 가치 "좋은이웃들"
든든한 나눔, 든든한 지원 "좋은이웃들"



연수3동은 인천시 연수구 다른 동에 비해 평균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이 많아지고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만난 김○○(만79세)은 2023년 타구에서 전입을 온 독거어르신입니다. 지인과 형제가 사망하고 살던 집이 재개발로 주거위기에 처해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여 연수3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주거환경의 변화로 도움을 청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저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방문 후 집안을 살펴보았는데 오래된 가전과 살림살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30년도 넘은 금성세탁기를 탈수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것마저 고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오랫동안 억척스럽게 일을 하여 관절이며 몸이며 다 망가진 상태지만 세탁기가 고장이 나도 버릴 수가 없다." 하시며 허허 웃으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필수가전인 세탁기 지원을 위해 좋은이웃들 사업을 연계하였습니다. 그 후 세화종합복지관의 담당자는 대상자와 심층상담을 하였고, 관계 형성을 위한 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어 노인대학에 매일 다니며 스스로 주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연수3동행정복지센터 지역위원의 노노케어를 위한 안부 확인 전화 봉사와 미용서비스까지 더해져 정서적인 지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좋은이웃들 위기지원 사업으로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심리적 안정감과 일상생활의 지원이 더해져 대상자는 이제는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을 하면서 공공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좋은이웃들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관 협력 강화 및 자원 공유로 지역 내 인적·물적 지역복지 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나눔, 든든한 지원 '좋은이웃들'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다양하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민·관이 '같이' 시작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좋은이웃들' 이 앞으로도 빛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민·관이 '같이' 협력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좋은이웃들'이 앞으로도 빛나게 이어지길 바란다."

연수3동행정복지센터
윤미영 주무관

가구 유형별 위기발생 징후

위기가구의 개념 위기가구란 제도적 요건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가구의 대처 능력을 넘어 어려움이 증폭되거나, 생활·경제·돌봄·심리·안전·주거·건강·교육·취업 등에 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의미함

위기발생 징후

- 특정 대상이 아닌 생애 주기(아동, 청소년, 청년·중장년, 노인)에 따른 위기유형별 의심 징후
- 공통 징후와 그 외 생애 주기별 포착될 수 있는 각 위기 유형별 징후

참고 생애주기별 대상 구분 목적은 더욱 즉각적인 대상자 포착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고자 하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생애 특정 시점에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낙인, 대상자와 비대상자간 이분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 징후를 살필 때는 공통 의심 징후 +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생애 주기 의심 징후 관련 예시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참고 실제 현장에서 포착되는 위기 상황은 여러 위기 징후가 한 대상에게서 다면적으로 포착되거나, 가구 단위의 여러 대상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징후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살필 필요가 있음

위기가구 발생 경로

구분	내용	예시
제도 밖	제도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	•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가구 • 자격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갖고 있지만 수급 절차나 정보 이해의 어려움으로 지원받지 못한 가구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기준 심사가 엄격해서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 미리 판단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경우 • 어려움 및 좌절을 겪으며 무기력해진 경우
	보호체계의 부재	• 알코올 의존증 또는 정신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보호자나 연계된 서비스 등이 부재한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차상위계층 •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나 기타 법적인 조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등
	지원이 종료된 경우	• 과거에는 수급,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지원이 종료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
제도 내	수급 상태이지만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	

위기가구 공통 징후 사례

사례 1

P씨(남, 52세)의 집 앞은 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음. 집 주변이 매우 지저분한 데서 그치지 않고 쓰레기로 인해 옆집과 복도까지 바퀴벌레가 들끓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 집도 방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벌레와 악취를 견디기 힘들어 보임

연계자원 거주지 환경 정리 및 식·생필품 지원

(좋은이웃들)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식료품 등

사례 2

K씨(남, 77세)는 청각장애, 그의 아내는 지체장애로 부부 모두 타인과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좋은이웃들 봉사자인 마을 이장님이 자연재해로 인한 마을 피해를 점검하던 중 최근 폭우로 뒷산의 토사가 흘러내린 것을 확인함. 흘러내린 토사는 부부의 집 담벼락을 무너트렸으며, 담벼락 주변에는 LPG 가스통 등이 놓여 있어 부부의 안전이 매우 우려됨

연계자원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좋은이웃들) 무너진 담벼락 수리 및 고정

사례 3

이웃 주민인 B씨(좋은이웃들 봉사자)가 살펴본 바, A씨(여, 25세)의 남편은 얼마 전 도박장 근처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빌린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가출하여 연락이 끊김. 대상자는 홀로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이미 많은 대출이 있는 상황에 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 생활 해결조차 어려운 여건임

연계자원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좋은이웃들) 무너진 담벼락 수리 및 고정

아동 위기 징후 사례

사례 1

센터에 방문한 C군(4세)의 몸에 깨물린 상처와 군데군데 멍이 다문화센터 종사자인 좋은이웃들 봉사자 E씨를 통해 발견됨. 친구들과 놀다가 물리거나 다친 상처 같지 않고 깊고 심한 상처가 눈에 띄었음. 급히 종합병원 응급실에 C군을 데려갔고, 주변의 신고로 엄마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됨. 검사 결과, 장기 파열 및 고열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되어 긴급 수술을 진행함. C군은 엄마의 동거인과 엄마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방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밝혀짐

연계자원 아동보호시설 연계 및 치료 집중 지원

[좋은이웃들]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사례 2

J양(10세)은 4개월 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고등학생인 언니와 단둘이 살게 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낡은 가옥으로 매우 열악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 보임. 친인척과도 왕래가 거의 없어 모두 두 자매의 양육을 거부하였다고 함

연계자원 동절기 대비 식·생활용품 지원

[좋은이웃들] 난방유 지원
[지역협의회] 식사 지원
[드림스타트 및 개인후원] 가정용품 및 침구류 등

사례 3

Y양(11세)은 다문화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음. Y양은 학교에서 학습 태도가 바르고 성실하나 또래 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교실에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음. 하교 후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오면, 집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어머니의 퇴근을 기다림

연계자원 방학동안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 지원

[좋은이웃들] 다문화지원센터 연계, 음식 및 식재료 구입 지원

청소년 위기 징후 사례

사례 1

B양(16세)의 학교 선생님(좋은이웃들 봉사자)이 등교 시, B양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는 일이 잦은 것을 확인함. 대상자 혼자 지내고 있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며 안전이 우려됨. 주로 라면이나 인스턴트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정리 정돈이 부족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좋은이웃들에 연계함

연계자원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돌봄 공백과 안전 확보

[좋은이웃들]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
[지역 복지센터] 모니터링 상담 및 안전 확인, 대상자의 방 도배·장판 교체 및 가구 지원

사례 2

J양(15세)은 학교에서 늘 혼자 지내고 있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불안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본적인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하고 교복도 늘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악취가 심하게 남. 충치 치료도 받지 못해 악화되어 치아 부식, 변색 증상이 있고 섭식에도 어려움이 있음

연계자원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 및 충치 치료

[좋은이웃들] 생필품 및 속옷, 치아 보철 치료비 지원

사례 3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좋은이웃들 봉사자 A씨가 살펴본 바, 3급 발달장애를 가진 S양(22세)은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음. 현재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며 특별한 수입원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 후 좋은이웃들 수행 기관에 연계함

연계자원 기본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

[좋은이웃들]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
[지역협의회] 쌀 10kg

청년·중장년 위기 징후 사례

사례 1

L씨(여, 45세)는 옥탑방에서 홀로 살고 있음. 한겨울인데도 현관문 유리창은 바람에 깨져 있고, 출입문도 유리가 깨져 있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지자체에서 알게 되었고, 민관협력 지원을 위해 좋은이웃들에 신고함. L씨는 직장암 투병 중으로, 식사 준비도 어렵고 난방시설도 열악하여 건강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태였음

연계자원 반찬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좋은이웃들] 가스레인지 및 가스 설치
[지역협의회] 도시락 지원
[지역새마을회] 주거환경 개선

사례 2

혼자 살고 있는 S씨(여, 33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사망, 가족 간 성추행, 폭행을 겪으며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며 생긴 대인기피증으로 동료들과 갈등이 잦아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자주 함. 고도의 불안과 심한 우울감으로 근로가 어려움에도 극복 의지가 강해 약을 복용하며 근로 중이나, 관리비 및 거주지 임대료 체납, 부채 등으로 퇴거 위기 상황이라고 함

연계자원 퇴거 위기 해소를 위한 임대료 체납분 지원

[좋은이웃들] 임대료 체납분 지원

사례 3

W씨(여, 42세)는 중증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재혼가정으로, 작년에 W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계단에서 굴러 허리가 골절되었음. 남편은 최근 뇌졸중 발병 및 심근경색으로 근로가 어려워졌고 W씨가 운영하던 공방의 월 소득 20만 원으로 세 자녀와 부부, 시어머니가 함께 생활함. 초등학생인 막내아들은 ADHD, 고등학생인 둘째아들은 심장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월세와 공과금도 체납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

연계자원 체납 월세 지원 및 식·생필품 지원

[좋은이웃들] 체납 월세 지원
[지역협의회 및 푸드뱅크] 식사 지원 및 생활용품 꾸러미 지원

노인 위기 징후 사례

사례 1

M씨(남, 69세)가 다니는 교회 목사(좋은이웃들 봉사자)인 H씨는 몇 주 전에 다리를 다친 후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M씨의 집을 방문함. 집 문에는 단전, 단가스 독촉장이 잔뜩 붙어 있었고 힘껏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과 119요원이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M씨는 엉망이 된 집안에 기운 없이 축 처져 침대에 앉아 있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됨

연계자원 반찬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좋은이웃들] 관리비 체납액 지원
[관할시청] 긴급지원생계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장기요양등급 신청, 독거노인돌봄 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병원] 신경외과 검사 및 CT 촬영

사례 2

H씨(남, 65세)는 작년 여름까지는 택시 운전을 하며 월세도 잘 내며 생활하였으나, 여름 이후부터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며 생활함.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꼭두새벽에 지인의 집에 먹을 것을 주러 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임. 기억력 저하가 심해 바로 전날에 본인이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함

연계자원 공적연계(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정신과 진료

[좋은이웃들] 공적자원 연계 신청 및 진료비 지원

사례 3

M씨(남, 71세)의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자살하였고, 충격으로 M씨의 아내는 요양병원에 입원함.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아들의 채무 일부를 상환하였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배우자의 요양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함. M씨도 정신적 불안증세와 삶에 대한 의지 저하로 굶거나 술로 끼니를 해결함. 집 천장 및 안방으로 쥐가 들어오고 빗물이 새는 등 매우 열악하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연계자원 공적연계 지원 신청, 주거환경 개선 및 식음료 지원

[좋은이웃들] 공적자원 연계 신청 및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관할시청] 긴급복지지원
[푸드뱅크] 식사지원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청소용품, 생필품

위기가구 발굴 관련 행동요령

봉사자 화동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

○ 좋은이웃들 봉사자 대상 위기가구 발굴 관련 교육 실시

- 좋은이웃들 봉사자 교육 중, 신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의 일환으로 위기 의심 징후 및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교육 진행

○ 담당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

○ 2인 이상 동반 활동

- 안전상의 문제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2인 이상으로 구성·동행하여 위기가구 접촉

○ 발굴 활동 중 봉사자가 위험을 느끼는 경우, 지역 응급체계 등에 신고하여 안전을 우선 확보

○ 위기가구 방문 상담 시 동행

- 욕구조사, 사례관리, 자원 연계 지원 등을 위해 대상자 방문 시, 좋은이웃들 담당자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과 동행

○ 대상자에 대한 비밀보장

- 기록, 사진촬영 시 반드시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 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함
-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함

○ 좋은이웃들 봉사자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

- 무리한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고 수행기관에 연락해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와 개인적인 연락처 공유를 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형성해 외부에서 만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함

위기·위급 시 신고 기관 및 방법

○ 위기 상황

봉사자의 1차 확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기가구의 기본 정보 및 욕구를 간략히 파악, 유선전화·팩스·메일·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정보를 전달

○ 위급 상황

봉사자의 1차 확인 단계에서 상해, 학대, 자살 위험 및 심각한 영양결핍 등의 위급 상황 시 지역 응급체계에 우선적으로 신고 후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제보

대상	1차 신고기관	2차 신고기관
아동	• 경찰서 • 시·군·구 아동학재던담공무원 긴급전화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전달
노인	• 경찰서 • 정부민원콜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	• 경찰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살 위험	• 자살예방상담전화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필요한 자세

○ 경청

-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진정한 관심 표현하기
-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공감과 교감을 표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유지하기

○ 긍정적인 의사소통

- 긍정적이고 친근한 태도 유지하기
- 긍정적인 언어와 칭찬, 감사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비판이나 부정적인 발언은 피하기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언어나 용어 사용하기
  ※ 은어나 유행어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소외감을 줄 수 있음
-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기

○ 공통점 찾기

- 공통된 관심사, 경험 또는 의견 등을 찾아 교감 형성하기
- 공통점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친밀감 형성하기

○ 공감과 이해

- 상대방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하기
- 상대방의 경험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과 안녕에 진심 어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 개방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삶, 경험, 관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 단, 과도한 질문 세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신뢰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존중과 열린 마음

-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기
- 판단은 삼가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 진정성

-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를 진실하게 대하기
- 가식으로 상대를 대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기
-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기

※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비밀 보장

-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대상자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기

대상유형별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대상유형	필요한 자세
아동	• 아이들 개개인의 개성과 감정을 인정하기 • 아동의 노력, 성취 및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기 • 아동의 취미, 선호 활동 등에 관심을 표하고, 관련된 질문을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려 노력하기 •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기 • 대화 중 아동을 재촉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 심한 장난을 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며, 아이를 무시하는 언어나 욕설을 삼가기 •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기 • 아동이 질문을 이해했는지, 특정한 방향으로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청소년	• 비판적인 태도 피하기 • 상대방의 장점과 긍정적인 변화에 필요한 잠재력에 집중하기 • 상대방의 자신감과 자존감 형성에 필요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 • 성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기 • 일관된 말과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기 • 독립성이 강해지는 시기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 어린아이 취급, 지나친 통제는 삼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지도 및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율성과 개성을 인정하기 •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기 •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 트렌드, 관심사 등에 관심을 보이기

대상유형	필요한 자세
청소년	• 청소년들은 독특하고 익숙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 선호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려 노력하기 • 대화 중 실수를 저지르면 먼저 사과하고 이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하기
다문화·이주배경	• 상대의 문화적 배경, 관습, 전통, 가치관 등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기 • 문화적 규범, 에티켓, 민감성을 알아보고 오해 또는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삼가려 노력하기 •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에 호기심과 진심어린 관심을 보이기 • 문화적 차이를 판단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하기 •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감을 쌓으려 노력하기 • 문화적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들의 말, 어조, 그리고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기 • 언어적 장벽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 조정하기 • 명확하게 말하고 필요에 따라 간단한 단어, 시각적 도구 및 제스처 사용하기 •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 실수,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샀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기
노인	• 존중을 기반으로 어르신을 대하기 • 반말 및 경시하는 태도는 삼가고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기 •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말을 분명하고 천천히 전달하기 • 어르신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응답하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기 • 청력 정도를 가늠하여 목소리 크기 조절하기 • 건강이나 고립감 등과 같이 어르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 • 푸념이나 욕에 크게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푸념은 가볍게 받아넘기기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섣부른 일반화를 삼가기 • 장애인은 모두 같지 않고 개개인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기 •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추정하는 것을 삼가기 • 과잉보호나 과염려, 과잉친절,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동정은 삼가기 • 도움을 받는 대상자이기보다는 친숙한 이웃 관계를 형성하기 •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기 • 자연스럽게 대하며 일반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도와주기 • 장애인을 도울 때는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도움 제공하기 • 적절한 언어와 어조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진행하기 • 필요시 구체적이고 정교한 언어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 사용하기 •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시간 제공하기

위기가구 지원·제도 정보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생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LH마이홈(☎ 1600-1004)
	긴급복지 지원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	의료급여 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 차상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부 초기 지원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민원안내(☎ 02-2100-60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남북하나재단(☎ 1577-6635)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국 대표전화(☎ 1577-9337)
아동 청소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아동 청소년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전화(☎ 1388)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읍·면·동 주민센터 •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 1661-2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고용	취업성공 패키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임신 출산	영양플러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주택	임대주택	• LH마이홈(☎ 1600-1004)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 개보수,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시·도 주택도시공사
법률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 구조 제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2023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

발 행 일 2023. 12.
발 행 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 소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공덕동)
대 표 번 호 02-2077-3934
F A X 02-712-0968
홈 페 이 지 www.bokji.net
편집·디자인 ㈜케이에스센세이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퍼스텍빌딩 12층
02-761-0031

2023

좋은이웃들

우수사례집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T. 02-2077-3945 ~ 7

www.bokji.net